

지역 소식통

정읍시, 봄철 산불 예방 대응 평가 '최우수기관'

정읍시가 전라북도 주관 '2022년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산악부와 평야부로 구분해 산불 예방, 산불방지 홍보, 산불 대응, 산불방지 협력도 등 4개 분야, 8개 세부 지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시는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114명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산불 예방 무인 방송시스템과 산불감시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방지 활동을 펼치고, 산불 안전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청년벤처스, 제2회 청년플리마켓 개최

고창군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진행한 플리마켓이 대성공을 거뒀다. 기획부터 홍보, 진행, 판매까지 모두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력넘치는 젊은도시 고창'의 큰 힘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과 고창청년벤처스(회장 한선웅)가 지난 18~19일 부안면 일대에서 '제2회 청년벤처스 플리마켓'을 열었다. 이번 플리마켓은 청년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부스를 운영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박빵, 솜사탕 만들기 체험, 페이스페인팅 체험부스를 열었고, 직접 만든 소품을 판매하는 공예마켓과 중고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청년벤처스는 청년 창업가들과 청년농업인들이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민 안전 보험'

시민 자동 가입, 자연재해 등 13가지 항목 보장... 사회안전망 역할 '특특'

정읍시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시민들의 부담 없이 시가 일괄 납부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항목으로는 자연재해(일사, 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 교통사고, 강도살인, 스포츠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감염병, 개 물림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 후유 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감염병 사망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항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더욱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게 됐으며,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와 자연재해, 개인형 이동 수단에 의한 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칠보산 활공장 일원에서 열린 제2회 정읍 내장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間に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칠보산 정취 만끽'

정읍 내장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성료

정읍시 칠보산 활공장 일원에서 열린 '제2회 정읍 내장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間に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정읍을 항공 레포츠 명소로서 전국에 알리고, 패러글라이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회는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 패러글라이딩협회(회장 정창수)가 주관했으며, 정읍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양일간 전국에서 모인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11개 팀 100여 명의 선수들은 정밀착륙 종목과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그동안 길고달란 기량을 뽐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밀착륙은 과녁판처럼 생긴 착륙 목표 지점을 바닥에 놓고 참가자가 해발 280m의 칠보산 활공장을 이륙해 공중에서 비행한 후 발로 목표 지점을 찍으며 착륙하는 방식이다.

열린 경쟁 끝에 개인전 연습 조종사 부문에서 전주파닉스의 김태영 회원이 1위를 차지하고, 조종사 부문은 광주프리맨의 유재용 회원, 단체전은 전주미스미스터가 각각 1위의 기쁨을 누렸다.

유진섭 시장은 "칠보산 활공장은 창공에서 아름다운 산과 보랏빛 라벤더 물결을 감상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의 최적지"라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비행이라는 도전을 통해 성취감과 자유를 만끽할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9회 고창 복분자 · 수박축제 성황리 마무리

농산물 판매 4억4500만원... 전국에서 14만여명 방문

'제19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사흘간(17~19일) 군민과 관광객 등 모두 14만 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는 대면 위주 행사와 온라인 판매(11번가 라이브커머스방송, 높을고창몰) 병행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메인행사장과 판매장을 분리해 축제장에 찾아온 관광객이 복분자와 수박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차장에 판매장을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는 수박을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귀한 고창복분자를 축제기간 동안 구입할 수 있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기에 보이는 라디오(정오의 희망곡), 복분자 카테일쇼, 고창가수 트로트 한마당 등 공연과 더위도 잊게 만드는 복분자와 수박캐릭터와의 시원한 물총싸움, 수박빨리 먹기대회, 장애인 3종경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9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사흘간(17~19일) 군민과 관광객 등 모두 14만 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트 한마당 등 공연과 더위도 잊게 만드는 복분자와 수박캐릭터와의 시원한 물총싸움, 수박빨리 먹기대회, 장애인

물 3종경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연지마당 나눔장터' 개최

정읍시는 지난 18일 정읍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앞 광장에서 제1회 연지마당 나눔장터를 열었다.

연지마당 나눔장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 회복과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와 노후화로 인해 침체한 도시재생 사업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리본(RE:born)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이재운)와 지역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준비해 이번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청년들과 소상공인, 도시재생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지역 농특산물과 공예품을 판매했다.

또 삼색 귀리떡과 비빔밥 양파장아찌, 전복 놀이, 플레이팅 도마, 한지 공예품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거리를 비롯해 정읍의 맛을 담은 음료



와 제과 등 다양한 디저트 품평회도 열렸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당일 행사장 인증사진을 찍어 페이스북과 인스타, 카카오톡 등 SNS에 올리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실시

해양레저활동을 위해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전국적인 해무질 유행으로 해무질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어기 수산자원 채취 등 무분별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란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꽃게 금어기에 맞춰 6.21.~8.21.까지 2개월간 금어기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금어기 수산자원 감시원 4명을 채용하여 집중 지도·단속 기간동안 수산자원 감시원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동반 활동하며 관내 해수욕장,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을 중

심으로 금어기 불법어업 예방 홍보 활동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단속적인 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비어업인 허용 어구 또는 방법(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낙시, 가리, 외통발, 낚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위반하는 행위, 잡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 금어기 금지채장 위반으로 비어업인의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 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 금지채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